하나의 콘텐츠를 스마트폰·PC·TV서 모두 공유

‘N-스크린’ 주도권 경쟁 불붙었다

IPTV 3사·지상파 3사·콘텐츠 업체간 움직임 분주

올해 N스크린이 IT 및 콘텐츠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각 업계 및 정부 측의 분주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N스크린은 디바이스 간 연동으로 콘텐츠를 끊임없이 볼 수 있는 개념이다. 지난해 스마트폰 시대가 개막하자마자 대중화의 물결을 탔고 태블릿PC 시장마저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는 N스크린의 ‘화룡점정’인 스마트TV를 둘러싼 제조사와 통신사, 구글 및 애플 등의 경쟁구도가 윤곽을 나타낼 전망이다.

SK텔레콤 서진우 사장은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이번 CES 방문시 N스크린에 가장 주목했다”면서 “TV는 N스크린 경쟁에서 매우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실제 CES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들의 진화된 N스크린 기술이 상당히 비중 있게 소개됐으며, 시스코도 통신사 등을 고객으로 삼아 클라우드 기반의 N스크린 기술인 ‘비디오 스케이프’를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는 20일 오후 충정로 스마트미디어 센터에서 ‘스마트 미디어시대, N스크린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하는 ‘제5회 디지털미디어포럼’을 개최했다.

N스크린 시대에 맞는 콘텐츠 제작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최근 N스크린의 빠른 전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 KBS 등 지상파 3사, CJ E&M, SK텔레콤 등 콘텐츠 유통과 관련된 정부와 국내 주요 업체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다.

SK텔레콤은 오는 24일 N스크린에 대해 ‘IT업계 큰 화두 중 하나’라면서 N스크린 전략을 발표하고 관련 서비스를 시연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영상 콘텐츠를 TV,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N스크린 서비스인 ‘호핀’도 조만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SK텔레콤은 이 같은 서비스가 탑재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내놓아 주도권 경쟁에서 앞서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KT 역시 아직 구체적인 N스크린 전략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적극 뛰어든 모양새다.

KT는 지난해 컨버전스 와이브로 본부 산하에 N스크린 관련 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는 이를 30여 명 규모의 ‘N스크린 CFT’라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N스크린의 기반인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선도적으로 공을 들여온 만큼, N스크린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N스크린= TV나 PC,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서 하나의 콘텐츠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용자가 구입한 콘텐츠가 단말기가 아니라 서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단말기로 불러와 이용할 수 있다.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대접전 예고

최상급 사양 업그레이드…상반기 잇따라 출시

옵티머스 2x

아트릭스

옵티머스 블랙

올 상반기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경쟁구도가 베일을 벗고 있다.

프리미엄급 제품의 경쟁력이 사실상 시장 주도권을 결정하는 만큼, 제조사 간의 혈투가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이 매년 6월에나 차기 아이폰 모델을 공개하는 상황에서 상반기 프리미엄급 신제품은 안드로이드폰 위주로 전개되는 분위기다.

이들 제품은 대체로 듀얼 코어 프로세서에 지난해보다 더 선명한 디스플레이 등을 갖추고 있다. 운영체제(OS)도 안드로이드 2.2 버전인 프로요에서 2.3 버전인 진저브레드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출사표를 먼저 던진 것은 LG전자. 지난해 스마트폰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해 체면을 구긴 LG전자는 지난해 12월 글로벌 전략 스마트폰 옵티머스 2X를 공개해 대반격을 예고했다.

옵티머스2X는 프로요 기반이지만, 스마트폰 최초로 듀얼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해 속도 등 성능이 대폭 향상됐다.

카메라 화소도 800만에 달하는 등 최상급 사양을 갖춘데다, OS도 진저브레드로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옵티머스2X는 지난 14일 국내에서 예약판매가 시작됐다.

LG전자는 옵티머스 2X와 함께 글로벌 스마트폰 공략의 ‘쌍두마차’로 옵티머스 블랙도 내세웠다.

‘CES 2011’에서 공개된 옵티머스 블랙은 밝기와 절전 성능이 대폭 개선된 ‘노바(NOVA)’ 디스플레이를 탑재한데다, 측면 두께가 6㎜에 불과하고 무게가 109g 수준으로 가벼운 게 특징이다. 옵티머스 블랙은 1분기 내로 국내에 출시될 전망이다.

지난 CES에서는 모토로라 역시 출사표를 던졌다. CES 최고의 스마트폰으로 선정된 아트릭스다.

안드로이드 2.2 기반의 아트릭스는 듀얼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HD급(960×540) 4인치 디스플레이를 장착했다.

지문인식 기능이 탑재되는 등 소비자관점에서 제작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있다. 아트릭스는 1분기에 미국에서 AT&T를 통해 출시되며 국내에는 2분께 출시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HTC, 소니에릭슨 등이 선보일 상반기 전략폰은 내달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카멜레온 ‘투명탱크’ 2~3년내 실전 배치

영국의 방산업체가 주위 풍경과 구별되지 않는 탱크를 개발 중이며 앞으로 2~3년 안에 이런 투명탱크가 실제 전장에 배치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MSNBC 뉴스가 보도했다.

BAE 시스템스사는 “탱크의 한 면에 부착된 카메라가 포착한 주변 영상이 탱크의 다른 면에 나타나 주위 풍경과 구별되지 않도록 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개발 중”이라고 밝히고 이런 구조가 전투에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탱크가 촬영한 이미지는 계속 업데이트돼 이동 중에도 완벽한 위장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BAE의 한 관계자는 사람이나 사물을 주변 환경의 실시간 영상으로 감싸는 기술은 오래 전부터 연구돼 왔으나 BAE가 개발 중인 장치는 “영상의 디스플레이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e카무플라주’라고 불리는 이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대해 회사 측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으나 평면TV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박예감 한게임 ‘테라’ 25일부터 정식서비스

NHN의 게임포털 한게임은 오는 25일부터 블루홀 스튜디오가 개발한 차세대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테라’의 정식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게임은 오는 24일까지 사전 결제 고객에게 할인혜택과 함께 게임 아이템을 제공하는 ‘테라 예약결제 이벤트’를 진행하며 정식서비스에 맞춰 다양한 신규 콘텐츠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테라’의 요금제는 3시간 이용권(3000원), 30시간 이용권(1만5000원), 30일 이용권(1만9800원), 90일 이용권(4만7500원) 등으로 구성됐다.

한게임은 ‘테라’에서 비공식프로그램(BOT)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뒤바뀐 ‘13번째 별자리’ 소동은 “2천년전부터 제기…큰일 아냐”

최근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 ‘뒤바뀐 별자리’ 소동은 2000여년 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라고 라이브사이언스 닷컴이 보도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운세와 관련돼 있다고 믿는 별자리들이 사실은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고, 이후 지구의 자전축과 지구-태양의 위치가 바뀜에 따라 별자리도 바뀌었기 때문에 ‘땅꾼자리’가 13번째 별자리로 추가돼야 한다는 한 학자의 주장이 보도되면서 소동이 시작됐다.

미국 미니애폴리스 커뮤니티 칼리지의 천문학 강사 파크 컨클은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천문학과 점성술 사이의 격차를 설명하면서 현재 보는 밤하늘의 별자리들은 처음 이름이 붙을 당시에 비해 위치가 근 한 달이나 어긋나 있기 때문에 별자리로 점을 보는 사람들은 실제로 엉뚱한 남의 운세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뜻하지 않게 소동의 진원지가 된 컨클 교수는 “보도에 대한 반응은 실로 놀라울 정도이지만 사실은 수백년 전부터 과학자들이 설명해 오던 현상을 말해준 것 뿐”이라면서 “큰 일이 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욕 헤이든 천체과학관의 천문학자 조 라오는 “별자리의 변화는 지구의 적도가 달의 중력에 이끌릴 때 생기는 축의 이동 때문”이라면서 “별자리가 한 바퀴 완전히 돌아 오는데는 2만6000년이 걸리며,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은 유동적”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과학자들이 업데이트한 정확한 별자리별 생년월일(양력)은 다음과 같다.

▲염소자리 : 1월20일~2월16일
▲물병자리 : 2월16일~3월11일
▲물고기자리 : 3월11일~4월18일
▲양자리 : 4월18일~5월13일
▲황소자리 : 5월13일~6월21일
▲쌍둥이자리 : 6월21일~7월20일
▲게자리 : 7월20일~8월10일
▲사자자리 : 8월10일~9월16일
▲처녀자리 : 9월16일~10월30일
▲천칭자리 : 10월30일~11월23일
▲전갈자리 : 11월23일~11월29일
▲땅꾼자리 : 11월29일~12월17일
▲궁수자리 : 12월17일~1월20일